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중학교 가정과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평가

김상미* · 이해자**1)

주감중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eaching · Learning Process Plan with Problem-Based Learning through Book-Making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Kim, Sang Mi* · Lee, Hye Ja**1)

Jugam Middle school*

Department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eaching · learning process plans with problem-based learning using book-making applying to the “Dressing and Self Expression” unit and evaluate its effect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for first grade.

We developed teaching · learning process plans with problem-based learning using book-making including 9 teaching materials for teachers and 15 learning materials for students. Further, we conducted and investigated pre- and post-tests in a form of questionnaires in 167 students from a girls' middle school in Pusan.

Teaching · learning process plans with problem-based learning using book-making showed positive results in body satisfaction, such as reduction in distortion or less dissatisfaction regarding students' body images. Also, they were found to be less affected by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The estimation of students included the positive contents that the class was interested with various materials and it provided them with a chance to understand their body. Meanwhile, minor comments pointed out lack of time and complained of the amount of assignments.

With these results, we found that teaching · learning process plans with problem-based learning using book-making was an appropriate model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nd we suggested that this class might be applied to other units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1) 교신저자: Hye Ja Lee, San 7, Darakri, Gangnaemyeon, Chongwongun Chungbuk 363-791, Republic of Korea
Tel: 043-230-3715, Fax: 043-321-4087, E-mail: hjlee@knue.ac.kr

2) 본 논문은 2012년도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Key words: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책만들기(book-making), 중학교 가정과(Middle School Home Economics), 교수·학습과정안(teaching·learning plan), 옷차림과 자기표현(Dressing and Self Expression)

I. 서론

청소년기는 성장급등과 2차 성징의 발현으로 신체의 상(像)이 급격히 변화하며 자신에게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가 의식의 중심이 되고 신체적인 지각이 중요성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Stuart & Sundeen, 1995; Koh & Lee, 2004 requotation).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이미지를 의미한다(Sung et al., 1997).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이미지 관련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Lee, 2007; Park, 2007),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 학생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신체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Yoo, H. G., Shin, H. S., Kim, K. M., Hong, M. K. & Hwang, Y. S., 2010).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는 자아존중감의 근원이 되고(Kim & Yi, 2009)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기개념 및 사회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기에는 변화된 신체에 대한 새로운 신체이미지의 형성이 요구된다.

2007 개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urces development, 2007a)에서 중학교 1학년 가정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목표는 옷차림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전한 신체관과 외모관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urces development, 2007b)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신체이미지 관련 내용은 학교 교육을 통해 다루어져야 하며 가정 교과가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연구를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청소년기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Koh & Lee, 2004; Song & Lee, 2009)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수업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이해와 비판을 통해 바람직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형성과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urces development, 2007b)에서는 가정 교과의 목표인 생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역량 함양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의생활과 관련된 생활 과제를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중심학습은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이 지식과 경험을 재구성하여 지식에 대한 일반화를 추구하고 태도, 행동, 가치의 변화를 도모한다. 나아가 주어진 문제와 유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용 능력이 증진된다. 따라서 문제중심학습은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형성이라는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용한 교수·학습 방법이 된다.

문제중심학습은 다양한 교과에 적용되어 많은 효과가 검증되었으나 메타인지와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같은 학습자 변인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 최근에는 학습자 변인에 따른 수업효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문제중심학습에 다양한 전략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중심학습이 여러 차시에 걸쳐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각 단계마다 습득한 지식을 학습자 본인에게 의미 있고, 적합하고, 타당한 것으로 재구성한다면 후속 학습에의 전이효과는 높게 나타난다. 책만들기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하면서도 주제에 대한 일관성을 지키며 전개되어 단원 내용 정리에 활용되므로(Won, 2003; Im & Lee, 2006) 문제중심학습에서 주로 활용되어온 문제로그(problem log)와 포트폴리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특히 책만들기는 학습 흥미 유발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시키는데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개별 학습 상황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통해 하위능력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므로 문제중심학습에 책만들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은 교수·학습의 전개과정은 문제중심학습으로 구성하고, 일부 단계를 보조하거나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책만들기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새롭게 습득한 지식을 재구성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해 주므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므로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적용한 후 효과를 알아보고, 교수·학습 과정안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중학교 1학년 가정과 ‘웃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에서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형성을 위한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다.
2. 개발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수업에 적용하고 평가한다.
 - 2-1.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 2-2.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수업에 대한 연구자의 반성, 책만들기 결과물의 내용을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가. 문제중심학습

문제중심학습은 복잡한 현실의 상황을 묘사한 문제로부터 수업이 시작되어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교육설계인 동시에 학습방법의 포괄적인 교육체계이다(Kim et al., 2010).

문제중심학습의 특징은 문제, 교사, 학습자, 교수학습과정 등의 네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문제중심학습은 ‘문제로 시작하는 수업’이다. 문제는 포괄적인 학습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문제는 실제 생활과 관련된 비구조화(ill-structured)되고 복

잡하고 실제적(authentic)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학습의 주도권이 학생에게 있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다. 학습자는 문제의 규명부터 시작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는 전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결과물과 학습과정에 대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게 된다. 셋째, 문제중심학습에서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학습의 진행자로서 문제를 설계하고 학습 자원을 준비하며 학습자 집단을 조직하고 평가를 계획한다. 교사는 수업의 시작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조연자·동료 학습자·안내자로서 활동해야 한다(Kim, 2005). 넷째, 교수학습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과 협동학습을 강조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학습과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동료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고안한다. 협동학습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넓힐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현상과 문제는 하나의 지식이나 해결책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상대주의적 관점을 배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문제중심학습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특히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Keum & Lee, 2004; Cho, 2006). 문제중심학습은 초·중등 교과 교육에 적용되어 자기주도적 학습력, 문제해결력, 협동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의 신장에 효과가 있으며 인지적 영역(문제해결력, 학습성취, 기타 인지영역)과 정의적 영역(자아개념, 학습태도, 학습흥미, 기타 정의적영역)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개념과 학습태도에서 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문제중심학습은 인지적 영역에 비해 정의적 영역에서 더 큰 향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문제중심학습을 가정과 수업에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학습자 중심의 수업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Keum & Lee, 2004).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하여 수업의 효과를 본 연구결과를 보면, 소비자 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며(Jung & Shin, 2001) 자아효능감이 향상되었다(Keum & Lee, 2001). 문제에 대한 도전감과 학습에 대한 흥미와 같은 내적동기를 유발시키고,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 같은 사회성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1). 그러나 메타인지³⁾ 하위수준의 학습자들은 메타인지적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

3) 인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며, 메타인지는 인지를 계획, 조정, 규제하는 것이다. 메타인지는 문제해결 과정을 점검하고, 자신의 사고과정을 알고 조절하며, 적절한 전략의 사용으로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학습방법의 학습과 관련 있다(Park & Woo, 1999).

로 인해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통제하기 어려워 문제해결과정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Woo, 1999). 최근에는 지적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력 등과 같은 학습자 변인에 의한 수업효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수업전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변인에 의한 수업효과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접목하여 문제중심학습 교수·학습 과정을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문제중심학습을 의생활 단원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을 수업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도록 한다.

나. 책만들기

책만들기⁴⁾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생각과 느낌을 계획적으로 구상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한 후 표지를 만들어 책의 형태로 완성하는 활동으로써 형식으로서의 책과 표현으로서의 미술의 만남이다. 창의성이 중시되면서 프로젝트 수업을 위주로 하는 영미권과 유럽권에서는 책만들기가 교육과정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책을 주제로 한 오브제’ 전을 통해 최초로 소개된 이후, 지식의 재구성과 개성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쓰기, 그리기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교육의 필요성 측면에서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책만들기는 학습 내용의 정리 수단으로써 학습과정이나 최종 학습 단계에 활용되어 창의성 증진(Byun & Kim, 2007)과 수업에 대한 흥미 유발(Im & Lee, 2006; Kim, 2007)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생과 교사 간 상호작용이 전통적 학습에 비해 활발하게 일어나 학생의 영어불안도가 감소되었다(Won, 2003). 책만들기 프로젝트를 환경수업에 적용한 Kim(2008)은 강의식 수업에 비해 생태적 감수성, 자연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초등교육에서 책만들기는 교과 내용을 정리하거나 타 교과와 미술 교과를 부분적으로 통합해서 가르치는 교육적 도구

로 활용되었고 인지적 영역에 비해 정서적 영역에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많았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책만들기는 주로 미술교과에 적용되어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창의성과 개성이 드러남으로써 통합적 표현활동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6). 최근에는 정서적 영역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Park(2008)의 연구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를 표현하는 책만들기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자아 정체감의 형성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Won(2009)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주제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여 한편의 책을 만드는 작업이 학생들의 자기개념과 자아존중감을 고취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만들기는 개인의 욕구와 관심을 반영하고 내면의 생각을 표출시키며 다양한 각도에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재구성하도록 한다. 자신이 책의 주인공이 되므로 학생들에게 자기표현,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문제중심학습에 책만들기를 접목하고자 하는 의도는 문제중심학습과 책만들기가 구성주의 학습 원리를 따르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문제중심학습은 구성주의적 목표와 방향이 거의 일치되며 책만들기 활동 또한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 협력 중심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교수·학습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Im, 2008). 구성주의 교육을 바탕으로 한 통합교육을 위해 책만들기가 활용되므로(Kim, 2006) 책만들기는 구성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도구이자 교수·학습 방법이다.

문제중심학습 모형 중 하나인 IMSA 모형은 학습자 각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그(Problem log)를 활용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 문제로그는 저널 타입의 기록장으로 문제 상황에 대

4) 책만들기는 폴 존슨(Paul Johnson)의 저서 <Making Books>(2001)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번역되는 과정에서 메이킹북(making-book)과 북아트(book-art) 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이킹 북, 북아트, 소책자 만들기, 그림책 만들기 등을 통틀어 책만들기라 칭한다.

해서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기록하는데 이용된다(Yoon, 2007). 문제중심학습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가장 잘된 하나의 결과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 중에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을 포함시킨다(Kim, 2007). 문제중심학습에서의 책만들기는 문제로그와 같이 학생들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이용되고, 포트폴리오와 같이 학습의 전체과정에서 활용된다. 따라서 문제중심학습의 각 단계마다 습득한 지식을 책만들기를 통해 학습자 본인에게 의미 있고, 적합하고, 타당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정리한다면 후속 학습에의 전이효과는 높게 나타날 것이다.

책만들기는 학습자 수준에 따라 내용 구성이 가능하고 형식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수업에 대한 부담이 적으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책을 만드는 과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여(Im & Lee, 2006)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촉진시킨다(Kim, 2006; Park, 2008). 교사는 학습자 관찰과 책만들기의 진행정도를 파악하여 학습자의 학습 상황 확인 특히 하위능력 학습자에 대해 개입과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문제중심학습에 책만들기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 보다 유의미하게 참여하여 대부분의 학습자가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이라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으로 이루어진 수업과정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청소년기의 신체이미지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신체에 대한 응축된 개념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이다(Sung et al., 1997). 신체적 자아의 지각으로서 자아개념의 핵심요소이자 자아개념의 한 평가적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신체이미지는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건강 상태, 신체 기능, 운동 능력, 지각 능력, 신체적 매력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한다(Lee & Chung, 2006). 신체이미지는 지각적 신체이미지와 태도적 신

체이미지로 구분된다(Wee & Kwon, 2005). 지각적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 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또는 왜곡하여 지각하는가에 대한 것이고, 태도적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느낌, 평가, 행위 등을 말한다(Song & Lee, 2009).

급속한 성장과 발육이 이루어지고 신체적 성장과 성숙이 완성되는 청소년기는 전반적인 자기 지각에 있어서 신체적인 지각이 중요성을 갖게 된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의 57.9%와 남학생의 29.8%가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신체 이미지 왜곡이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급별 신체이미지는 초등학교의 27.6%, 중학생의 14.8%, 고등학생의 9.1%가 각각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체이미지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2). 오늘날처럼 외모가 한 개인을 이해하는 기준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불만족 또는 왜곡으로 이어져 긴장, 우울, 낮은 자존감, 대처능력 저하, 섭식 장애와 같은 심리·정신적 문제와 대인관계 회피 등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 신체이미지는 청소년기의 주 발달과업인 자아존중감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Kim & Yi, 2009) 기본적인 신체이미지에 위협을 받게 되면 자아 정체감이 파괴되어 정상적인 생활뿐 아니라 사회관계 및 대인관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Lee & Chung, 2006).

신체적 매력 또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지만 청소년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 신체에 대해 평가하며,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가치관이나 미에 대한 통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Nam, Lee, & Hwang, 2009 quotation) 특히 대중매체가 중학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밝혀졌다(Kim & Yi, 2010).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신체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이를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하기 쉽다. 따라서 신체이미지는 대중매체, 이상적인 미, 유행, 문화 등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좀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외모의 중요성과 이상적인

사회기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하며 인식(Awareness)과 내면화(Internalization)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Cho & Koh, 2001). 인식은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내면화는 외모에 대한 이상적인 사회적 기준을 승인하며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여 자신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타인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고 의식하게 만들어(Song & Lee, 2009) 개인의 미에 대한 수용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 신체이미지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ho & Koh, 2001).

청소년들이 사회문화 같은 외부 환경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자신의 경계 내에 있는 생각, 감정,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Park,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비판을 통해 신체이미지에 대한 인지적 왜곡을 바로잡도록 돕고자 하였다.

3.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교수·학습

청소년기는 성장급등과 2차 성징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기 쉽고,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못해 바람직하고 정상적인 신체이미지보다 왜곡된 신체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어 드러나 보이는 신체적 매력과 의복 등 외모에 대하여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며(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b) 또래 집단에 동조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 극단적인 의복스타일을 추구하기도 한다.

2007 개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a)과 2009 개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2011)에서의 중학교 1학년 가정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목표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있다. 청소년의 의복행동은 신체이미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ee, 2007; Lee, 2009),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b)에는 의복을 통한 자아 정체감 형성은 건전한 신체관과 외모관의 정립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옷차림을 통한 신체이미지 개선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신체이미지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의복행동을 추구하도록 하는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청소년기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Koh & Lee, 2004)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의 수업은 바람직한 외모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형성을 통해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신체와 외모에 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외모지상주의, 대중매체의 영향, 이상적인 미 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과 그 영향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Song & Lee, 2009).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문제중심학습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하여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또는 경험하게 될 문제로부터 수업이 시작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배움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재구성하여 지식에 대한 일반화를 추구하고 태도, 행동, 가치의 변화 등 행동지침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중심학습은 신체와 외모에 관련된 문제를 다룸으로써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태도, 행동, 가치 변화를 유도하고, 실제 생활에서 의생활 관련 문제를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주므로 신체이미지 수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책만들기가 미술교과에서는 이미지의 표현에 중점을 둔다면, 미술교과 외 교과에서는 내용 정리 즉 글쓰기에 중점을 둔다. 글쓰기는 다른 표현 방식에 비해 나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표현방식이다(Jung, 2010). 자기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아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자아가치 발견을 통해 또는 그 과정에서 자아 정체감을 획득하게 되고, 자아 정체감을 획득하면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Jung, 2010). 자신과 자신에 관한 주제로 이루어진 책만들기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고취시키고(Won, 2009) 자

아 정체감을 확립하는데(Park, 2008) 효과적이다. 이상과 같이 책만들기는 바람직한 가치관 변화, 문제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 변화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 수업에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다면 문제해결과정과 책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 인생과 삶에 대한 관점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자아표현, 자아성찰, 반성적 사고를 통해 태도나 가치 등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유도하여 신체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가정과 ‘옷차림과 자기 표현’ 단원에서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교수·학습 과정안의 총괄학습목표와 상위학습주제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해설서를 분석하여 선정하였고, 학습주제와 학습내용은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와 신체이미지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신체이미지에 관한 내용과 분량은 교과서별로 편차가 상당히 큰 편으로 나타나 신체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신체이미지 관련 문제는 문제의 속성, 문제 개발을 위한 지침 및 문제 개발 설계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Jang, 2005; Cho, 2006)를 참고하여 교육과정 분석 및 학습목표 선정, 마인드맵을 통한 학생들의 관심사 파악, 관련 도서와 기사를 통한 자료수집, 시나리오 구상을 거쳐 개발하였다. 개발된 1개의 문제는 자기평가를 거쳐 가정교육 전문가 2인의 자문을 받은 후 설문지를 통해 현직 가정과교사 6인에게 타당성을 검토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교수·학습 과정안은 조연순(2006)의 문제중심학습 전개과정을 기초하여 차시별 책만들기 활동을 접목하여 <Table 1>에서와 같이 개발하였다. 문제중심학습은 활동 목적과 한정된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활동범위를 설계하였으며 책만들기는 접기를 통해 책의 형태를 완성한 후 자료와 학습내용 정리, 표지만들기, 완성하기 순으로 이루어져 내용정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다.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안은 가정교육 전문가 2인의 자문을 거친 후 이메일에 첨부된 설문지를 통해 현직 가정과 교사 6인에게 타당성을 검토 받아 수정하였다.

학습자료는 개별 학생들에게 신체이미지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읽기 자료의 형태로 15부를 개발하였고, 책만들기와 신체이미지 관련 도서를 제공하였다. 교사용 참고자료로는 읽기자료 4부와 PPT 설명자료 5부를 개발하였다.

책만들기 결과물 평가안은 분량, 제출기한 등의 양적평가와 내용의 질적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여 가정교육 전문가에게 타당성을 검토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Table 1. Teaching · Learning Process Plan'S Procedure

period	Teaching · learning process plan with problem-based learning through book-making	
	Problem-based learning	Book-making
1	Introducing the problem	Finished book shape through folding (Task: Gathering the reference, Reference arrangement)
	Problem solution plan	
2	Reference searching and problem solution	Organizing the solution of the group task (Task: Making the front cover of the book)
	Presentation of the results and fostering attitude	
3	Book-making activity and Evaluation	Organizing the individual task, Self-reflection. (Task: Completing the book)

2.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적용

본 연구에서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모든 학급을 대상으로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안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수업을 행하기 전·후로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측정 검사를 하였다. 부산광역시 소재 J여자중학교 1학년 5학급(167명)의 학생들에게 2011년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3주에 걸쳐 총 3차시(1차시 45분) 모두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모두 수업의 진행시 6모둠을 구성하였다. 실험 수업은 1학년이 집중이수제로 인해 기술·가정 교과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 시간에 적용하였다. 실험 수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자습시간을 이용하여 책만들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3. 검사 도구와 자료 분석

검사 도구는 <Table 2>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특성, 지각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태도적 신체이미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수업 전반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하였다. 태도적 신체이미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Koh & Lee, 2004; Song & Lee, 2009)를 참고하여 체중관심과 외모평가, 신체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선행연구(Cho & Koh, 2001, Song & Lee, 2009)를 참고하여 사회문화적 요인 인식과 사회문화적 요인 내면화로 구성하였다.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사전·사후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설문 내용의 내용 타당도는 가정교육 전문가 2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지각적 신체이미지는 현재의 키와 몸무게가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키와 몸무게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체형인식도와 BMI 일치 여부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BMI는 체중(kg)/

Table 2. Composition of Survey Tool & Reliability

Variables	Contents	Item	Item type	Reliability
General characteristics	parents educational background	1	multiple-choice question type 5-point Likert type	
	character, first semester grades, friendship, home atmosphere, standard of living	5		
Perceptual body images	current height & weight	1	recording type	
	ideal height & weight			
	body image perception	1	3-point Likert type	
Self - Esteem	self - Esteem	10	5-point Likert type	.88
Attitudinal body images	weight orientation	4	5-point Likert type	.73
	appearance evaluation	5		
	body satisfaction	6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awareness	4	5-point Likert type	.84
	internalization	4		
Class evaluations	learning contents & teaching · learning material	5	5-point Likert type	.92
	learning activities	2		
	learning effect	3		
	schooltime	1		
	class satisfaction	1		
	the positive things	1	opening type	
	the difficulties of class	1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1			

키(cm)²으로 계산하였으며, 대한비만학회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 18.5미만은 저체중, 18.5이상 23미만은 정상, 23이상은 과체중으로 판정하였다. 자아존중감 점수는 상(40%), 중(20%), 하(40%)로 나누어 집단을 분류하였으며, 사회문화적 요인 인식과 내면화 점수는 고(50%)와 저(50%)로 나누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고)인식(고)내면화, (고)인식(저)내면화, (저)인식(고)내면화, (저)인식(저)내면화의 네 집단으로 살펴보고있다.

학생 설문지는 167부를 배부하였으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5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수업 전반에 대한 평가는 불성실한 응답과 무응답을 제외한 총 14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는 SPSSWIN 통계 프로그램(Ver 12.0)을 이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사용한 자료 분석 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대응표본 t-검증, 일원분산분석(ANOVA), 공변량분석(ANCOVA) 등이다.

책만들기 결과물 평가는 학생들의 결과물 중 내용이 우수하고 자료제공에 동의한 35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3쪽부터 4쪽까지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 중 신체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문장을 추출하여 반복해서 읽고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여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IV. 연구 결과

1.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가. 학습목표와 학습주제, 학습내용

‘웃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에 적용할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교수·학습 과정안은 문제해결과정과 책만들기 활동을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이해하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바람직한 변화를 통한 긍정적인 신체 이미지의 확립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교수·학습 과정안은 총괄학습목표와 상위학습주제를 선정하여 차시별 학습주제와 학

습목표를 두었으며 학습내용을 구성하였다. 학습주제별 학습내용을 살펴보면, ‘신체이미지 불만족’ 수업은 신체이미지 불만족과 왜곡의 실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수업은 PBL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 후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수업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이해와 태도 변화를 통해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하였다.

나. PBL 문제

PBL 문제는 등장인물인 얼짱녀와 몸짱남이 외모에 대한 관심사나 고민을 이야기나누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얼짱녀와 몸짱남은 연예인이나 친구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신체와 외모를 평가하여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의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는 타인과의 비교나 외모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함으로써 형성되어지므로 PBL 문제에 반영하여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신체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하며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PBL 문제에 모듈별 과제와 개별 과제를 두었다. 모듈별 과제는 PBL 문제의 등장인물인 얼짱녀와 몸짱남의 고민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결안을 도출하여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개별 과제는 다양한 해결안을 참고하여 자신의 고민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내용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즉 모듈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최종적으로 학습목표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PBL 문제는 <Table 3>과 같다.

다.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교수·학습 과정안의 실제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교수·학습 과정안은 <Table 4>와 같다. 1차시는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에 대한 이해와 문제 파악을 목표로 하였으며, 2차시는 모듈별 토론을 통한 PBL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였으며, 3차시는

Table 3. PBL Problem

문제명	나는야 청소년문제해결 도우미!
다음은 두 친구의 메시지 대화 내용입니다. (배경음악: 원더걸스 so hot)	
몸짱남:	얼짱녀! 너 정말 얼짱 맞아? 얼굴 보고 싶다.
얼짱녀:	(노래부르며) 섹시한 내 눈은 고소영, 아름다운 내 다린 좀 하지원.
몸짱남:	와우~ 정말? 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특히 2PM의 멋진 근육이 부러워 닉네임을 이렇게 지은건데 너 정말 얼짱이구나.
얼짱녀:	워워워~ 사실은 외모에 자신 없는 얼짱녀랍니다. 외모 중 마음에 드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 그 중 작은 눈과 짧고 굵은 다리가 쥔 싫어. 이런 내가 넘 싫어.
몸짱남:	나도 그래. 키가 165cm인데 친구들이 작다고 우습게 봐. 근육이라도 있으면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남잔 얼굴보다 키와 근육이잖아.
얼짱녀:	(노래부르며) 엄마는 왜 날 이렇게 낱아쳐서 내 삶을 피곤하게 하는지. 휴~. 여자는 예뻐야 취지도 잘 되고, 시집도 잘 간대. 드라마 보면 가난하고 능력 없고 성격이 괴팍해도 예쁘기만 하면 결국 돈 많은 재벌2세랑 결혼하잖아. 내 친구는 이쁘고 뼈 짝 마르고 다리 좀 길다고... 학교에서 고백도 많이 받아.
몸짱남:	우린 앞으로 이런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정말 우울하다.
<p>◆ 모듬별 과제(2차시) :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청소년문제해결 도우미입니다. 얼짱녀와 몸짱남이 위의 내용으로 상담전화로 신청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해 줄 수 있는 말을 소책자 2P에 정리해 봅시다.</p> <p>◆ 개별 과제(3차시) :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책자 3P에 정리해 봅시다.</p>	

개별 문제 해결과 책만들기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신체이미지의 변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 수업 과정안은 학습자의 수준과 제한된 수업시간을 고려하여 미니강의와 같은 교사의 개입이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문제해결계획표 작성은 전체학습을 통해 이루어졌다. 모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읽기자료가 제공되었다. 책만들기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의 잠정적인 결과와 최종 결과를 정리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태도와 가치 변화 등의 행동지침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4.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총괄학습목표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상위학습주제	신체이미지		
1 차 시			
학습주제	신체이미지 불만족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의 절차와 학습자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 신체이미지 불만족과 왜곡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다. 		
책만들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테이션 - 접기를 통해 책의 모양 완성하기 · 1P - 수집한 자료 정리해 오기(과제) 		
학습 단계	학습 유형 (시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리엔테이션	전체 학습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석 확인 ※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소개 - 수업 의도, 학습 흐름, 학습자 역할 ※ <책만들기> 방법 안내, 책만들기 평가 기준 제시 	[읽기자료, PPT] [사절지 1/2장]
문제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 유발 	[동영상, PPT]

만나기	학습 (8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 제시: 신체이미지 왜곡에 관한 통계자료를 확인한다. ※ 문제 제시 및 문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을 통해 문제를 제시하고, 발문을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도출하여 문제를 파악하도록 한다.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한다.
문제 해결 계획	모둠 학습 (7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분담 ※ 문제해결계획표 작성 	[모둠활동지]
	전체 학습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계획표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하고 교사는 PPT를 통해 내용을 제시한다. 	[모둠활동지] [PPT]
	모둠 학습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과제 분담 	
	전체 학습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제시 및 차시예고 	
2 차 시			
학습주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PBL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을 말할 수 있다. · 바람직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책만들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P - 모둠별 과제 해결 결과정리하기, 토의내용 정리하기 · 앞표지 - 완성해오기(과제) 		
학습 단계	학습 유형 (시간)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 분위기 조성	전체 학습 (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출석확인 ※ 전시학습 확인 ※ 과제 확인 ※ 본시학습 확인: 총괄학습목표를 재확인한다.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학습의 흐름을 알아본다. 	[PPT]
자료 탐색 및 문제 해결	모둠 학습 (12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문제해결 및 문제해결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과제 : 얼짱녀와 몸짱남이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전화를 신청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 토의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교사는 읽기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에 맞게 선택하도록 한다. ※ 책만들기 활동: 내용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과제 해결 결과를 소책자 2P에 정리한다. 	[소책자] 시간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읽기자료]
	전체 학습 (7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교사의 미니강의</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생읽기자료에 대한 생각해보기를 중심으로 교사의 미니강의를 진행한다. - 신체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올바르게 알고 비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PPT] [PPT설명자료]
	모둠 학습 (8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토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제해결결과를 정리한다. 	[소책자 또는 문제해결지]

결과 발표	전체 학습 (10분)	※ 결과발표 및 지식의 공유 - 교사는 모듈별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발표 내용을 종합·정리한다. ※ 과제 제시 및 차시예고		
3 차 시				
학습주제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형성			
학습목표	· 자신의 신체와 외모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다. ·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책만들기 활동	· 3P - 개별 과제 해결 결과정리하기 · 4P - 자기반성하기 · 책만들기 완성하기(과제)			
학습 단계	학습 유형 (시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 분위기 조성	전체 학습 (5분)	※ 인사 및 출석확인 ※ 과제 확인	※ 전시학습 확인 ※ 본시학습 확인	[PPT]
태도 형성	전체 학습 (15분)	※ 태도 형성 -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와 외모에 대해 탐색하고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지선아, 사랑해> 동영상 감상, <헤어 스프레이>의 주인공 소개 · 자기 탐색 시간 -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형성을 위한 방법을 정리한다.		[동영상] [모둠활동지] [PPT, 읽기자료]
책만들기 활동 및 평가	모둠 학습 · 개별 학습 (25분)	※ 개별 과제 해결하기 ◆ 개별 과제 : 자신의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형성을 위한 방법을 소재자 3P에 정리해 보 시다. ※ 책만들기 활동 - 개별 과제 해결 결과 정리하기: 편지글, 일기, 만화, 노래 개사 등 - 자기반성 내용 정리하기		[소재자] 자기주도적 학습 및 개별 상황과 맥락을 반영한 과제를 수행한다.

2. 교수·학습 과정안의 수업 적용 결과

이었고, 생활수준은 대체로 중산층(64.9%)이었다.

가. 연구 대상자의 특성

2) 지각적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1)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소재의 J여자중학교 1학년 5학급 총 167명이다. 설문지 작성에서 부실하게 응답한 16부를 제외한 151부만 통계분석을 하였다. 본인의 성격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3.7%로 가장 많았고, 교우관계는 대체로 원만하다고 응답한 학생(38.4%)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30.5%)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1학기 학업 성적이 중간인 학생이 33.1%로 나타났으며, 노력이 필요한 학생이 30.5%로 나타났다. 본인이 느끼는 가정분위기는 화목한 편(65.6%)

연구 대상자의 현재 키는 <Table 5>에서와 같이, 평균 156.71cm이며 현재 몸무게는 48.89kg이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키는 평균 164.19cm에 몸무게 46.85kg으로 매우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청소년 여성의 신체조건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송경자, 이미숙, 2009)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체형인식도는 BMI와 일치하는 경우가 저체중 18.2%, 정상체중 18.2%, 과체중이 11.2%로 총 47.6%로 나타났다. 반면 51.7%의 학생이 실제보다 뚱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0.7%의 학생은 실제보다 날씬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Table 5. Perceptual Body Image, Self-esteem,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Variables		Category	M(SD)	N(%)	
Perceptual body images	Height(cm)	current height	156.71(5.21)	150(100.0)	
		ideal height	164.19(10.02)	150(100.0)	
	Weight(kg)	current weight	48.89(8.68)	148(100.0)	
		ideal weight	46.85(5.95)	149(100.0)	
	BMI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Body image perception	thin	26(18.2)	1(0.7)	0(0.0)
	normal	20(14.0)	26(18.2)	0(0.0)	
fat	4(2.8)	50(34.9)	16(11.2)		
total	50(35.0)	77(53.8)	16(11.2)		
Self - esteem	top	4.10(0.43)	72(47.7)		
	midium	3.18(0.21)	59(39.1)		
	low	2.34(0.38)	20(13.2)		
	total	3.52(0.72)	151(100.0)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lower)Awareness(lower)Internalization	2.17(0.43)	44(29.1)		
	(lower)Awareness(upper)Internalization	2.81(0.24)	14(9.3)		
	(upper)Awareness(lower)Internalization	2.84(0.29)	47(31.1)		
	(upper)Awareness(upper)Internalization	3.49(0.42)	46(30.5)		
	total	2.84(0.63)	151(100.0)		

52.4%의 학생이 자신의 체중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신체조건으로 여기므로 각각 신체이미지에 대한 왜곡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중 집단이 47.7%로 가장 많았으며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저)인식(고)내면화 집단이 31.1%로 가장 많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평균은 (고)인식(고)내면화 집단이 3.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태도적 신체이미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변화에 대한 수업의 효과

1) 태도적 신체이미지

수업 적용 전 학생들의 태도적 신체이미지 사전검사의 평균 점수는 2.60이었으나, 수업 적용 후 사후검사에서의 신체이미지 평균 점수는 2.38로 감소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5.73, p<.001$). <Table 6>에서의 신체이미지 하위영역별로

보면, 체중관심은 평균 점수가 2.96에서 2.61로($t=5.62, p<.001$), 외모평가는 평균 점수가 2.23에서 2.06으로($t=3.60, p<.001$), 신체만족도는 평균 점수가 2.68에서 2.57로 감소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98, p<.001$). 이상과 같이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하위영역의 평균 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 수업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체이미지 인식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체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는 나의 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문항은 사후검사 평균 점수가 사전검사때보다 높게 나타나 수업 적용 후 키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이미지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들은 신체이미지에 대한 도식(schema)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신체이미지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장시간에 걸쳐 신체와 외모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음으로 판단된다.

Table 6. The Class Effectives Toward Attitudinal Body Images

N=151

Factor	Questions	pre-test M(SD)	post-test M(SD)	t-value
Weight orientation	I am always concerned about obesity.	3.01(1.29)	2.67(1.14)	3.47***
	I am maintaining ideal weight.	3.32(1.01)	2.87(0.92)	4.44
	If people get to know my weight, I will feel embarrassed.	2.92(1.14)	2.49(0.97)	4.66***
	Even a little bit of weight gaining makes me nervous.	2.60(1.14)	2.42(1.06)	2.16***
	total	2.96(0.81)	2.61(0.80)	5.62***
Appearance evaluation	I am satisfied with my appearance as it is.	2.69(0.97)	2.58(0.93)	1.29***
	My appearance has many strengths than weaknesses.	3.03(0.84)	2.83(0.78)	2.59*
	I am afraid to stand up in front of many people because of my appearance.	1.81(0.93)	1.77(0.78)	0.53***
	I consider getting cosmetic surgery to be more beautiful.	1.94(1.16)	1.54(0.86)	4.59***
	I can hardly stop thinking about the ugly part of my body.	1.67(0.99)	1.59(0.74)	0.88*
	total	2.23(0.65)	2.06(0.55)	3.60***
Body satisfaction	I don't like my height.	1.92(1.02)	2.64(1.28)	-6.29**
	I am satisfied with my physical appearance as it is.	2.83(0.98)	2.58(0.98)	3.01***
	I don't like my body shape.	2.94(1.17)	2.66(1.09)	2.82***
	I like my leg(leg length).	3.11(1.07)	2.83(1.06)	3.05***
	I like my face.	2.81(0.89)	2.62(0.86)	2.44***
	I like my health condition.	2.43(1.11)	2.12(1.05)	3.33***
	total	2.68(0.67)	2.57(0.76)	1.98***
Attitudinal body images		2.60(0.59)	2.38(0.60)	5.73***

* p <.05, ** p <.01, *** p <.001

2)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수업 적용 전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사전검사 평균 점수는 2.84였으나, 수업 적용 후 사후검사 평균 점수는 2.71로 감소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99$, $p<.001$). <Table 7>에서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하위영역별로 보면, 인식은 평균 점수가 3.00에서 2.87로 감소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t=2.40$, $p<.001$), 내면화는 평균 점수가 2.67에서 2.54로 감소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23$, $p<.001$). 이상과 같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평균 점수가 수업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 수업이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을 적게 인식하도록 하고, 자신의 가치로 수용하여 내면화하는 것을 줄여줌으로써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를수록 보

기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항목에서는 사후검사의 평균점수가 0.14 더 높아져 수업 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나 이상적인 미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인식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학습내용 전달시 수업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정해진 시간 내 학습목표 도달을 위해 교사는 교수·학습 활동을 계획하고 전개해 나가야겠다.

3)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따른 태도적 신체이미지 사후검사점수에 대한 공변량분석

일원분산분석 결과, 태도적 신체이미지 사전점수는 자아존중감, BMI, 체형인식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등 네 범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전점수의 영향을 통제하고 수업의 적용이 네 범주에 따른 태도적 신체이미지 사후

Table 7.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N=151

Factor	Questions	pre-test	post-test	t-value
		M(SD)	M(SD)	
Awareness	Most people think that the slimmer the better.	2.54(1.12)	2.68(1.05)	-1.51***
	This society has good views about the chubby people as well.	3.52(1.06)	3.17(1.03)	3.66***
	People think that they need to be looked cool and gorgeous these days.	3.21(1.06)	2.99(1.03)	2.08***
	People tend to consider that appeara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be successful.	2.77(1.45)	2.65(0.99)	1.38***
	total	3.00(0.72)	2.87(0.67)	2.40***
Internalization	My ideal appearance is the one like models and entertainers.	2.93(1.15)	2.72(1.22)	2.27***
	The Clothes looks prettier when skinny models wear them.	2.75(1.13)	2.48(1.13)	2.81***
	I used to compare me with models on TV or magazines.	2.25(1.09)	2.24(1.02)	-0.15***
	I don't want to look just like a model in magazine.	2.75(0.90)	2.74(0.93)	0.15**
	total	2.67(0.74)	2.54(0.77)	2.23***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2.84(0.63)	2.71(0.61)	2.99***

** p <.01, *** p <.001

검사점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검사점수의 교정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했다. 태도적 신체이미지 사전 검사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사점수를 공변량분석 한 결과, <Table 8>에서와 같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87, p <.05). 즉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사전점수가 네 집단간 태도적 신체이미지 사후점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균의

차(교정평균-평균)를 보면, (고)인식(저)내면화 집단이 -0.22로 평균의 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고)인식(고)내면화 집단이 -0.21, (저)인식(고)내면화 집단이 -0.14, (저)인식(저)내면화 집단이 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 학습 수업이 (고)인식(저)내면화 집단에 가장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8. Body Image Regarding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Attitudinal body image				
	pre-test				post-test
	N	M	SD	F	M(SD)
(lower)Awareness(lower)Internalization	44	2.03	0.54 ^a	8.14***	2.04(0.53)
(lower)Awareness(upper)Internalization	47	2.59	0.59 ^{ab}		2.37(0.53)
(upper)Awareness(lower)Internalization	14	2.72	0.55 ^b		2.58(0.73)
(upper)Awareness(upper)Internalization	46	2.87	0.54 ^b		2.66(0.54)
Variance	Attitudinal body image regarding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analysis of covariate				
	SS	df	MS	F	
covariance(pre-test)	4085.81	1	4086.81	99.27***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355.47	3	118.49	2.87*	
error	6008.79	146	41.16		
Total	205472.00	151			

* p <.05, *** p <.001, a, b: Duncan's Multiple Test

다. 수업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평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설문을 하여 149명의 설문지를 통계분석한 결과,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수업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는 평균 5점 만점에서 3.55로 나타났다. 문항별 점수는 ‘수업에 활용된 도서, 사진, 견본, 동영상 등 보조 자료가 다양했다(4.05)’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신체와 외모에 관한 생각을 해 보게 하는 새로운 학습주제였다(3.83)’, ‘수업시간에 받은 읽기 자료는 이해하기 쉬웠다(3.72)’, ‘수업에 대해 만족한다(3.64)’, ‘개인의 신체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올바르게 알게 되었다(3.59)’ 등의 문항 점수가 평균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업분량은 3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문항 점수가 가장 낮은 값(2.77)을 보였으며,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인 문항은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은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된다(3.43)’ 그리고 ‘토의를 통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해결안을 접할 수 있었다(3.50)’와 ‘수업 내용은 재미있었다(3.50)’이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학습주제의 참신함과 학습자료의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낀 반면 수업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은 125개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Table 9>와 같다. ‘수업이 재미있어서 좋았다(38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습주제가 재미있고 특별해서 좋았다(15명)’, ‘책만들기가 재미있었다(12명)’, ‘학습자료가 다양해서 좋았다(9명)’, ‘토의를 통해 모르는 내용을 알아가서 좋았다(9명)’, ‘나의 신체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8명)’, ‘외모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신체에 관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 좋았다(5명)’ 고 응답하였다.

수업에서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은 59개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Table 10>과 같다. 학생들은 ‘자료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과정이 어려웠다(14명)’, ‘시험기간이라 과제 할 시간이 없어 힘들었다(12명)’, ‘조별토의가 어려웠다(11명)’, ‘책만들기 방법을 몰라 힘들었다(11명)’고 응답하였다.

<Table 9> The Positive Things in Class

classification	Student answer	n	N
Teaching · learning material and learning activities	The task of making books was unique and I liked the procedures of each step of making books. Above all I had lots of fun.	12	39
	The class offered a variety of reference books as well as teaching · learning materials.	9	
	I like the process of arriving at the conclusion through group discussion.	9	
	Book-making activities were helpful for me to organize learning contents and my thoughts.	5	
	I liked the student-centered teaching and learning procedures most. It was very useful.	2	
	Teacher's personal stories added more fun to the class. It's quite memorable.	2	
The degree of interest about the whole classes	The classes were fun.	38	38
The points that are available in real life.	It was a good opportunity to take time to think about my body.	8	24
	I gained self-confidence and positive mind about my body and appearance.	5	
	It was good to change my prejudices about body and appearance.	4	
	The class offered various sorts of ideas and perspectives about body and appearance.	4	
	It was good to find out my body-image objectively through BMI.	3	
Learning topics and contents	I was happy to have realistic topics and contents which were directly connected to our current concerns not the boring text-book things. Learning contents were fresh and special.	15	19
	Learning contents were varying.	4	
Atmosphere in the class	I had lots of fun in group project because I had many chances to cooperate with friends.	4	5
	The atmosphere in the class was liberal and good.	1	

〈Table 10〉 The Difficult Things in Class

classification	Student answer	n	N
Learning activities	It is difficult to search and gather information and references.	14	37
	Class discussions was sometimes challenging.	11	
	It was hard to understand the way of making books in some steps.	11	
	It wa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by myself in some process.	1	
Task	It was difficult to complete all tasks on time.	12	12
Class time	I wished I had enough class time to study.	6	6
Teaching methods	The story about a complete stranger was difficult.	1	3
	The story of characters was long and tedious.	1	
	The teacher's presentation was difficult to understand because she spoke very quickly.	1	
Learning contents	The first class was challenging because of a lot of contents, so I was difficult to understand.	1	1

수업에 바라는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은 33개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Table 11>과 같다. 학생들은 ‘시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17명)’, ‘과제 제시 없이 수업시간내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4명)’, ‘모듬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3명)’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응답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학습주제의 참신함과 학습자료의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책만들기 활동은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된 점에 대한 응답내용을 통해 교수·학습활동과 학습자료가 학습목표 달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활동에 비해 수업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은 방법을 잘 몰라서 모듬토의와 책만들기가 어려웠고 과제할 시간확보의 부족으로 힘들었다고 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다.

라. 책만들기 결과물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 대상자 167명 중 140명의 책만들기 결과물을 수집(회수율 83.83%)하여 내용이 우수하고 자료제공에 동의한 3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Table 12).

자료수집·정리에서는 다수의 학생들이 성형수술, 운동, 다이어트, 화장 등과 같은 외모관리행동과 외모지상주의, 이상적인 미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얼굴 형태 분석을 통해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미의 실체에 대한 내용, 뚱뚱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에 관한 연구를 통해 외모지상주의의 등장배경과 사회문제로 부각된 원인과 악영향 등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학생들은 외모관리행동과 관련된 단순한 정보는 재구성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혔으나 외모지상주의, 이상적인 미와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는 관련 내용을 요

〈Table 11〉 The Suggestions & Improvement Things to Class

classification	Student answer	n	N
Class time	I'd like to have more class time.	17	20
	I do want to have this kind of classes more after the midterm exam	3	
Teaching methods	I hope that group members participate in the group discussion more seriously.	3	8
	I'd like to have more fun in class.	1	
	I hope that teacher should explain the procedures easily with easy words.	1	
	The teacher should be prepared for the classes beforehand, especially the computer or Projection TV.	1	
	The references such as the pictures and text data need to be provided to help better understanding.	1	
I want the teacher to let us know the effectiveness of book-making in detail.	1		
Task	I hope to complete all the tasks on time without extra assignment.	4	4
Class material	I'd like to reduce the amount of class material and assignment.	1	1

(Table 12) The Book-making Product after Class

front cover	1P Gathering the reference, Reference arrangement	2P Organizing the solution of the group task	3P Organizing the individual task	4P Self-reflection

약하여 정리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습득한 정보와 재구성 정도를 알 수 있다.

모둠별 해결안 정리에서는 학생들이 정리한 내용은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갖자, 자신의 신체조건에 만족하자, 자신만의 개성을 인정하자, 외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말자 등의 내용이 많았으며, 신체불만족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하기, 적정체중 유지하기, 건강한 생활하기 등의 행동의 변화를 강조한 내용도 있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다룬 수업과 연관성이 높은 내용으로는 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외모지상주의와 획일적인 미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매체를 올바르게 알자, 대중매체 속

모델들의 외모와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지 말자,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신체이미지를 이상적이라고 여기지 말자, 외모지상주의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지자 등이 있었다.

개별 해결안 정리에서는 대중매체가 요구하는 167cm, 47kg과 같은 획일적인 신체조건이 아닌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자, 외모에 대한 기준을 대중매체 속의 사람들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통해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알고 비판함으로써 외모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하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약간 뚱뚱하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단점을 장점으로 여기며 대중매체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편지글

의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통해 학습자의 신체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기반성에서 신체이미지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알아봐서 좋았다는 내용을 통해 본 수업이 학생들에게 외모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신체를 원망 했었는데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수업 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외모를 비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는 내용을 통해 본 수업이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켜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을 알 수 있다.

마. 수업에 대한 연구자의 반성

5차시로 계획된 교수·학습 과정안을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 3차시 수업을 적용하게 되었다. 3차시 수업 투입에 따라 교사의 미니강의, 전체학습 시간 확대, 재미있는 읽기자료와 PPT 자료 제공 등이 보강되었다. 그러나 원래 계획되었던 학습자 능력을 고려한 모듈 구성, 충분한 모듈토의 시간 제공, 수업시간내 책만들기 활동 전개 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연구자의 수업반성은 수업 관찰, 학생들과의 면담, 연구자의 수업일지, 책만들기 결과물, 연구 대상자의 수업 평가 등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보완할 점을 함께 고려해 보았다.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은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학습 방법과 학습자 역할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요구되었으나 수업시간의 제약으로 충분히 안내되지 못했다. 따라서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은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와 모듈토의와 책만들기 활동 등에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또한 교수·학습 과정안의 적용이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습과정에 대한 관찰과 책만들기 결과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변화와 발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은 자리 기준으로 5~6명의 학생들로 모듈을 구성하면 실험수업이란 의식 없이 자연스러운 수업분위기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었으나 모듈별 수업분위기, 학습참여도, 학습수행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은 학습자들의 학습능력, 개인차,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모듈을 구성한다면 모듈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의 형성 및 학습자에 의한 학습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규 교과시간이 아닌 창의적자율활동(자율활동) 시간에 연

구자가 수업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긴장감과 집중력이 정규 교과시간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자율시간은 시험을 치지 않는 수업이 전개되어 태도가 수행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일부 학생들은 소극적인 참여를 보였으며 연구자는 학습자의 개인 성향과 개인차 등을 알 수 없어 학습자를 만나고 촉진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과 유대 관계가 어느정도 맺어진 교과담당 교사에 의해 그리고 정규 교과시간에 수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책만들기는 수업의 과정을 담고 있어 매시간 학습자들의 수업진행 상황과 변화과정, 발달정도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수업과 평가의 연계, 과정과 결과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어 책만들기는 유용한 평가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가정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에 적용할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학습 전후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학생의 수업평가와 연구자의 자기반성, 책만들기 결과물에 대한 내용분석 등을 통해 교수·학습 과정안의 적합성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 및 해설서와 기술·가정 교과서를 분석하여 총괄학습목표, 상위학습주제, 차시별학습주제, 학습내용 등을 선정하여 PBL 문제와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이후 현직 가정과 교사 6인으로부터 교수·학습 과정안에 대한 평가를 받고, 부산광역시 소재 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 167명을 대상으로 3차시 수업을 실행한 후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에 적용할 PBL 문제,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교수·학습 과정안과 학습자료를 개발하였다. PBL 문제는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반영되어 문제해결을 통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안의 총괄학습목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형성으로 설정하고 차시별학습주제는 ‘신체이미지 불만족’,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로 선정하였다. 학습자료에는 학생용 학습자료 15부(총합평가 1부, 모둠활동지 3부, 읽기자료 11부), 파워포인트 1편과 교사용 참고자료(읽기자료 4부, PPT 설명자료 5부)를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안을 3차시에 걸쳐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 시간에 적용하여 수업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 본 수업이 학생들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인의 인식과 내면화를 줄여줌으로써 태도적 신체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바람직한 변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평가는 수업시간의 부족과 학습시간과 가정에서의 자기주도학습을 통한 책만들기 활동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수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 대한 연구자의 반성 결과, 앞으로 보완할 점으로 정규 교과시간에 충분한 수업시간을 확보하여 담당교사에 의한 수업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책만들기 결과물의 내용 분석 결과,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었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바람직하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개발된 교수·학습 과정안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가정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에 적합하고 학교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 점은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다양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특정 학교의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고, 실험 직후 신체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실험의 결과가 단기적 효과일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의 적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업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의 전개과정은 매시간 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총 수업 시간을 통해 거치게 되므로 2~3시간 연속수업(block-time)에도 활용가능하다. 학생 개인과의 주기적인 면담을 통한 학습 단계에서의 인식 분석과 매시간 책만들기 결과물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변화된 정도를 파악하는 질적분석을 통해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의 적용가능성과 학습자 변인에 따른 영향을 알아볼 수 있다.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이라는 새로운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적용후 효과를 검증하는데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가정 교과의 타당원에서도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의 교수·학습 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겠다.

참고문헌

- Byun, Y. H., & Kim, M. S. (2007). Effects of the making-books program on children's creativity, *Journal of Child studies*, 28(3), 251-266.
- Cho, S. M., & Koh, A. R. (2001).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body images on clothing benefits sough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7), 1227-1238.
- Cho, Y. S. (2006). *Theory & practice of problem-based learning*. Hakgisa.
- Im, H. J., & Lee, M. G. (2006). A case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for making the picture-story books utilizing gang-gang-sul-lae, *Journal of Korean dance education*, 17(1), 29-50.
- Jang, J. A. (2005). A case study of problem design process for PBL.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4(1), 65-92.
- Jung, H. Y., & Shin, S. O. (2001). The effect of problem-based learning on adolescent consumer consciousness and skil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13(3), 147-160.
- Jung, K. C. (2010). Self-expression writing for improving the ability of writing,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74, 529-558.

- Keum, E. J., & Lee, H. S. (2004). The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in Home Economics on self-efficacy: Focused on family relations area.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16(2), 27-36.
- Kim, J. M., & Yi, S. J. (2010).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Effect of Sociocultural Factors Towards Appearance, Body Mass Index and Self-esteem on Body Imag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27(6), 1-12.
- Kim, J. O. (2008). *A study on the effects of making book class on elementary students' environmental sensi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Kim, M. J. (2006). *A study on methods of teaching art using book art in middl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University of Education, Dae Gu, Korea.
- Kim, S. B. (2007). *A study on english writing instruction through the book art proj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Kim, S. J., Yang, J. H., Kim, H. S., Chae, S. G., & Lim, J. H. (2010). Scale Development of Effect on Problem-Based Learning (PB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3), 221-239.
- Kim, Y. K. (2001). *The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instruction on student's intrinsic motivation and socia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oh, A. R., & Lee, S. G. (2004). Formation Models of Body Image, Self-Esteem, and Clothing Attitudes as Related to Pubertal Physical Growth,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42(11), 189-203.
- Lee, E. H. (2007).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Body Satisfaction,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Clothing,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10(1), 49-58.
- Lee, M. S. (2009). The Relationship among Body Image, Social Self Concept and Clothing Behaviors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3), 433-443.
- Lee, Y. O., & Chung, Y. J. (2006).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focused on Body-Image, on the Body-Image & the Self-Image of Adolescence, *Journal of Psychotherapy*, 6(2), 103-119.
- Lim, S. M. (2008). *The research of educational usage plan of book art on basis of constructiv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Nam, S. J., Lee, E. H., & Hwang, H. S. (2009). Clothing buying model according to the adolescent consumer's body image and self-esteem: Focused on absorption in mass media and perception of BMI differences, *Journal of Korean consumption culture*, 12(1), 123-145.
- Park, J. H. (2007). A Study on Adolescent's Body-image, *Journal of Korean play therapy*, 10(3), 75-85.
- Park, J. W., & Woo, O. H. (1999). The Effects of PBL(Problem- Based Learning) on Problem Solving Process by Learner's Metacognitive Leve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15(3), 55-81.
- Park, S. S., & Lee, K. J. (2009). A Study on Improvement of Reading ability through book-making using English books on the Internet in Elementary School English class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9(1), 1-22.
- Park, Y. S. (2008). *Study on applying the book art to form a self-identity in fine art course at the middl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University of Education, Dae Gu, Korea.
- Shon, M., & Ha, J. M. (2008).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Problem-Bas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14(3), 225-251.
- Song, K. J., & Lee, M. S. (2009).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 on Perceptual, Attitudinal Body Images and Clothing Behavior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47(2), 97-110.
- Sung, Y. H., Kim, M. N., Kim, B. K., & Park, J. S. (2007). A Comparative Study of Realistic and Idealized Advertising: Focusing on Social Comparison Theory, *Journal of Korean advertising*, 18(4), 311-334.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2007a).

2007 Revised middle school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b).
 Revised middle school curriculum explanation
 regarding 2007-79 (III). Math, Science, Technology ·
 Home Economics.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2011). Revised
 middle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explanation regarding 2011-361.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02). Recognition &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teenagers toward appearance
 and health.
 Wee, E. H., & Kwon, Y. M. (2009). A Study on School
 Uniform Reforming Behavior in Relation to Body
 Image: In the Case of High School Girl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47(10), 73-85.
 Won, H. L. (2009). *An art education case for enhancement of*

*self-concept and self-esteem for the first grade of high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Won, S. Y. (2003). The effects of making a mini english book
 in english literacy classroom environment on korea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whole english ability and
 anxiety, *Journal of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0(1), 155-174.
 Yoo, H. G., Shin, H. S., Kim, K. M., Hong, M. K. & Hwang,
 Y. S. (2010). *Distressed Kids about apperance &
 fatness*. Hakgisa.
 Yoon, M. Y. (2007). *Study on designing art lesson in elementary
 school through problem-based-learning(PB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가정과 ‘옷차림과 자기표현’ 단원에 적용할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교수·학습 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학생자료 15개, 교사자료 9개를 개발하여 부산광역시 소재의 여자중학교 학생 167명을 대상으로 적용한 후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수업이 학생들의 신체이미지에 대한 왜곡이나 불만족을 줄여줘 신체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바람직하게 변화되었다.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수업이 재미있고, 특별하고, 학습자료가 다양하며, 나의 신체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등으로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수업시간의 부족과 과제가 많았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본 교수·학습과정안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의 타당성 검토와 수업시간의 확보를 통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된 책만들기를 활용한 문제중심 학습 교수·학습 과정안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 논문접수일자: 2012년 6월 16일, 논문심사일자: 2012년 6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8월 21일